

매주 수요일 편한 복장 출근 '캐주얼 데이'

전주시, 전 직원 대상 복장 간소화 정책 본격 운영... 탄소중립 위한 대중교통 이용 독려

전주시가 유연하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장 간소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매주 수요일을 모든 직원이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고 출근할 수 있는 '캐주얼 데이'로 지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캐주얼 데이'는 편안한 복장 착용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및 출퇴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위한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출퇴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는 기존 매주 수요일에 시행해온 다른 정책들과 이번에 도입된 제도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매주 수요일 △정시 출퇴근을 유도하는 '가족 사랑의 날' △대중교통 이용 확산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캐주얼 데이도 추가해 직원들이 가



캐주얼데이 시행 첫날, 조지훈 전주시장은 편안한 복장으로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전주시 공직자를 대표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벼운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복장 기준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범위 내의 편한 복장이다. 딱딱한 정장과 넥타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차림을 권장되며, 과도한 노출이나 찢어진 청바지 등은 지양하는 방식이다.

캐주얼데이 시행 첫날 조지훈 전주시장은 편안한 복장으로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하며 전주시 공직자를 대표하여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부터 출선수범함으로써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과 연계해 운영 중인 간부 공무원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매일 대중교통 이용 우수 직원 10명을 선정해 복지포인트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는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면서 "공직자가 먼저 편한 복장으로 버스와 자전거 이용에 앞장서는 작은 실천이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통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장애인·보호자 위한 '힐링 텃밭 교실' 운영

전주시보건소·전주시농업기술센터, 반려식물·꽃바구니·드라이플라워 만들기 등 진행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가 함께 힘을 모아 전주시역 장애인과 보호자의 우울감 해소를 도왔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덕진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전주시역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인 '힐링 텃밭 교실'을 운영했다.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치유 농업 프로그램은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야외 활동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접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시역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인 '힐링 텃밭 교실'을 운영했다.

청년 창업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의 일환으로, 전주시를 활동 지역으로 선택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주시의 다양한 지역 자원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소개하고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주문화재단과 전주관광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선배 청년창업가(홍시공 대표) 지역 파트너가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과 협업 가능 분야를 공유했다. 또한 참여한 창업팀들은 각자 구상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됐다. 이번 힐링 텃밭 교실에서는 치유 농업 전문 강사가 참여해 △흙을 만지며 반려식물 만들기 △일록달록 꽃바구니 만들기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담요 만들기 △드라이플라워 꽃다발 만들기 △싱그러운 향기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손끝으로 꽃과 흙을 만지며 식물을 섬세하게 다듬는 일련의 과정은 소근육 발달과 관절 가동 범위 확대 등 신체적 재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기쁨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현재 재활운동실(063-281-8641~3)에서 운영 중인 △그룹 및 방문재활운동 서비스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 △장애발생 예방 및 홍보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재활보건사업도 함께 안내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아람어린이집은 8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플리마켓으로 전한 따뜻한 나눔

아람어린이집, 전주시복지재단에 성금 100만원 기탁

전주시역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아람어린이집(원장 이정숙)은 8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원아와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플리마켓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평소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아람어린이집은 이번 기부를 통해 전주시복지재단 백만천사 캠페인에 처음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정숙 원장은 "아이들이 플리마켓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기쁨과 이웃사랑을 자연스

롭게 배울 수 있었다"면서 "이번 백만천사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아람어린이집이 재단 백만천사 캠페인에도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정숙 원장님을 비롯한 원아와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복지재단은 어려움이 있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백만천사 캠페인'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나눔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기업, 단체의 기부 참여(063-281-0030)를 기다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송천2동 자율방재단,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전주시 송천2동 자율방재단(단장 정순우)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7월 8일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재단원들은 15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정상 작동 여부 △쉼터 내 환경 관리 상태 △전기시설 노후화 및 누전 위험 여부 △비상시 대피로 확보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주민센터와 연계해 신속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운영 질관 예방 수칙과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



를 당부했다. 최원미 송천2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점검에 앞장서 주신 자율방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서울 청년 창업가와 함께하는 '넥스트로컬 지역캠프' 개최

전주시는 8일 서울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로컬 전주시 지역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캠프는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의 일환으로, 전주시를 활동 지역으로 선택한 창업팀을 대상으로 전주시의 다양한 지역 자원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소개하고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주문화재단과 전주관광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선배 청년창업가(홍시공 대표) 지역 파트너가 참여해 기관별 지원사업과 협업 가능 분야를 공유했다. 또한 참여한 창업팀들은 각자 구상

한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지역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 방안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캠프 이후에도 지역자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청년이음전주 회상공간 지원과 창업지원사업 안내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유)청운워터시스템, 국민 건강 지키는 물 환경 전문기업 '주목' 깨끗한 물, 배관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건강한 삶의 기본은 깨끗한 물이다. 그러나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생산된 수도수도 건물 내부의 노후 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녹과 스케일,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배관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립된 회사로 특히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민들로부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그동안 오랜 현장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동주택과 학교 병원, 공공기관, 상가, 산업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의 옥내급수관을 체계



건축물이 오래될수록 급수관 내부에는 녹과 스케일이 축적된다. 이로 인해 수질이 저하되고 세균이나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악취와 배관 부식까지 이어져 생활용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유)청운워터시스템은 전문 세척 장비를 이용해 이러한 노후된 배관

내부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배관 상태를 정밀 점검해 위생적인 급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세척 이후에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반영구적 녹·부식 억제 장치를 설치해 배관 내부의 산화 반응을 줄이고 부식을 예방할

관심을 받고 있어 설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김갑환 대표는 밝히고 있다.

옥내급수관 위생 관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기적인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옥내급수관 세척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청운워터시스템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방 중심의 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운영해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유)청운워터시스템 김갑환 대표는 "사람이 사용하는 생활용수의 대부분은 건물 내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배관 관리가 곧 건강관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정한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우수'

전문 세척·부식방지 기술로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앞장

이 같은 가운데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물 환경 전문기업 (유) 청운워터시스템(대표 김갑환)이 옥내급수관 세척과 유지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유)청운워터시스템은 단순한 배관 청소 업체가 아니라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기업을 목표로 설립

적으로 관리하며 고객의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옥내급수관 시공관리 우수업체'로 인정받아 시공 품질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으며,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